지자체와 연계하여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경남 창녕지부

취재 : 정 재 은

◀창녕지부의 하태식 지부장(우측, 본회 이사)과 장경희 간사

창녕지부 하태식 지부장(47세, 본회 이사)은 양돈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단연 '분뇨처리'를 꼽는다. 하태식 지부장은 "분뇨를 처리하는데 드는 많은 비용을 절감해야만 양돈농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창녕지부는 액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경종농가와 연계해 액비화를 잘 하고 있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견학하였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 후, 군에서 지원을 받아 액비 탱크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군에서 지원 받은 고액분리기를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분뇨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03년에는 축분 비료 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분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창녕지부는 회원들이 분뇨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한 액비화 사업으로 분뇨문제 해결 노력

창녕지역에서는 해양투기를 할 경우, 출하 1두당 1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분뇨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태식 지부장은 양돈경영을 해 나가는데 가장 골칫거리인 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2001년부터 군과 연계한 본격적인 액비화 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친환경 축산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액비화 사업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 지부장은 강조했다.

2001년 가을에는 전 회원들이 함께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액비화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강원도 철원과 경남 경주로 견학을 다녀왔다. 하 지부장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세심한 관찰을 하고, 정보를 철저히

▲하태식 창녕지부장

수집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견학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2002년 초에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 200톤 짜리 액비탱크 6기를 설치하였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다. 액비는 일부 경종농가와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2002년에 군에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아 회원농가에 분뇨처리를 위한 고액분리기를 1대씩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대규모 축분 비료 유통센터 건립을 예정하고 있다. 각 회원농가에서 발생한 분뇨에서 액비 50% 정도를 수거해 센터로 보내면, 선정된 전문업체를 통해 계약되어 있는 경종농가에 살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하 지부장은 "이와 같은 유통센터를 통한 분뇨처리 시스템이 정착되면 과거 해양투기시 드는 비용의 절반 가량인 7,500원 밖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들이 항상 골치를 썩어왔던 분뇨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창녕에서 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쌀, 양파, 마늘 등의 제품을 브랜드화할 경우 경종농가도 이득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 2001년 가을에 전 회원들이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액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철원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대규모 양돈단지를 포함해 회원이 80%를 사육

창녕지부는 1986년 설립된 이래 12년간 양돈농가의 권익보호와 사양기술 교류를 위해 힘써 오고 있다. 하태식 지부장은 2000년부터 제 8대, 9대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본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창녕지부 회원은 작년에 가입한 1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창녕군 전체의 돼지 사육두수는 5만7천두인데, 회원이 4만8천두로 80%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1,000두 이상의 전업농이 전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 지부장은 "10,000두 규모의 부흥양돈, 8,000두 규모의 양지양돈, 6,000두 규모의 금농양돈 3군데 대규모 양돈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회원들의 평균 사육두수가 1,500두 정도

된다."고 전했다. 임원은 하태식 지부장, 여영성 부지부장, 윤종희 총무를 비롯해 감사 2명,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성낙봉, 한태원, 이철 고문이 있다. 특히 한상규, 이상헌 회원은 아버지에 이어 2대째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 2세 양돈가이다.

지부는 회원들로부터 월 3만원의 회비만 받고 운영해 가고 있다. 하 지부장은 "지부에서는 회원들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방역활동 실시 및 각종 지원사업 시도

회원들은 각자 알아서 철저히 소독을 한다. 또한 회원을 포함한 방역요원들이 매주 수요일에는 소규모 농가로 소독 지원을 나간다. 2002년 4월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을 때는 회원들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뜻을 모아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2개 초소에서 10일간 차단방역 활동을 하였다.

도축장 영남산업은 일일 1,200두 정도를 도축하며, 창녕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돼지가 모이므로 질병 등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 지부장은 "영남산업과 협조 아래 방역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02년에는 영남산업 내의 육가공공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에는 군 차원에서 품질개선비로 돼지 1두당 1,500원의 보조를 해 주었다. 2003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그리고 부경양돈조합에서는 회원들이 사료를 구매해 갈 때, 사료사업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양돈협회 창녕지부는 낙우회, 한우협회, 육계협회, 양봉협회, 애조회, 산란협회와 함께 창녕군 축산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3개월에 1번씩 정기회의를 하고, 구제역 등의 질병발생, 생우 수입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축산인협의회 전 회원이 참여하여 구제역 발생시 성금을 모아 관내 방역초소에 제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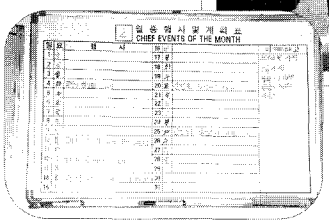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의 및 다양한 행사 개최

월례회의는 매월 9일 거의 빠짐없이 개최되고 있다. 회의 안내와 회의 결과 자료를 양돈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 2002년 11월 축협 앞 재래시장에서 개최된 돼지고기 수출부위 무료시식회
◀2001년 12월말에 군수, 축협조합장, 축산단체장들과 함께 양돈인들의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기재한다.

하 지부장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도 하지만,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양돈경영시 어려운 사항 등에 관해 편하게 의견교환을 한다."고 전했다. 1년에 2번 정도 사양관리, 생산성 향상, 질병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회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매년 5월에는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열어 지친 심신을 달래고, 친목 도모의 기회를 갖는다.



▲하태식 지부장(우측)과 장경희 간사가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있다.
◀창녕지부는 월중 행사 안내와 계획표 작성을 한다.

돼지고기 소비홍보 및 불우이웃돕기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00년 공설운동장, 2002년 축협 앞 재래시장에서 수출부위 촉진을 위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 2월에는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후지 400kg(2kg짜리 200개)을 창녕 군청을 통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하였다. 2001년 12월말에는 군수, 축협조합장, 축산단체장들과 함께 양돈인들의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하 지부장은 "행사 개최시 회원 전부가 100% 참여하고, 부부동반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양돈농가에 도움을 주는 제도 정착이 중요

모든 제도는 생산자인 양돈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 지부장은 "양돈농가에 부담이 가중되는 해양투기 개선부담금이나 등급판정 수수료 부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초 사료업체에서 사료 가격을 3% 정도 인상하였는데 경영비 악화를 초래하고, 돼지의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자조금 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출부위를 이용한 완제품 개발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 및 수요창출을 유도하고, TV 광고가 지속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소비가 늘어나고 판매가가 상승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 지부장은 외국인농업연수제도 역시 "양돈에 대해 전문 교육이 이루어진 노동력이 활용되어야 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양돈농가는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적절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의 준수, 항생제 투여 방지, 철저한 백신 및 방역활동, 후기사료 급여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양돈협회가 예전에 비해 침체되었던 분위기에 활력을 넣고 있어 신뢰하고 있지만, 더욱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돈